

편편이 챙기는, 또 다른 한남동 미술거리[이번 주 미술가 '스윗스팟']

2023. 07. 02. | 이한나 기자

스윗스팟(sweet spot)이란 배트로 공을 치기에 가장 효율적인 곳, 최적의 상황을 뜻합니다. 화랑과 미술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 시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전시를 효율적인 동선 위주로 안내합니다. 전시 이야기를 나눌 만한 맛집이나 카페 공간 정보도 곁들입니다.

[이번 주 미술가 '스윗스팟'-1] 첫 번째 탐구 지역은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일대입니다. 서울의 중심지 용산구에서도 미술가는 리움미술관이 있는 지하철 한강진역 위주로 몰려있고 더 많이 알려진 편입니다. 하지만 미술 좀 아는 젊은 층이나 용산 토박이들이 챙겨 보는, 개성 강한 갤러리들이 전통적인 대사관 밀집 지역인 유엔빌리지 인근에도 많답니다.

마침 이 일대에서 대중적 호감도가 높은 작가들 전시가 열려 방문객들 발길이 더 늘고 있다네요. 전시가 끝나기 전에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박지나, The Palace of Curiosities(2023) Egg tempera on canvas, 120 x 140 cm 디스위켄드룸

동양화에 템페라화 접목 유럽서 더 주목

재독 화가 박지나...디스위켄드룸

배를 채우고 에너지가 남으면 젊은 감각 갤러리도 체크해 보죠. 젊은 컬렉터들이 좋아하는 실력과 신진 작가를 많이 소개하는 디스위켄드룸에서는 박지나 개인전 '동쪽에서 뜨는 달'이 7월 15일까지 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활동하고 이 작가는 그리스로마 시대 조각상과 폐허 같은 공간, 자연이 어우러진 평면구성이 초현실주의 작품 같네요. 색감과 표현력이 뛰어나고 새와 식물 등의 세밀한 묘사가 눈에 들어오네요. 동양화를 전공한 작가는 서양 고전회화 재료인 에그 템페라를 채택해 묘한 색감을 완성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지내면서 '컬렉터스 룸'연작을 시작했지요. 서양의 '분더카머(16~17세기에 유럽에서 유행한 진귀한 물품을 모아둔 공간)'전통 회화와 우리네 책가도를 연상시킵니다. 작가는 유럽 기반 컬렉터층이 넓어지면서 현지 전시 일정이 차고 있어서 언제 다시 한국에 소개될지 모르겠네요.

조용한 유럽 골목가를 연상시키는 이곳에는 브런치 맛집 '윤세영 식당'과 '빌리지', 복합문화공간 '스튜디오 콘크리트' 등이 있습니다. 아 패션 좀 아는 분들에게 인기 있는 여성복 브랜드 'RECTO' 쇼룸도 근처군요.

글 | 이한나 기자(azure@mk.co.kr)

[출처] 매일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52350?sid=103>